

멸종위기종이란?

자연상태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야생의 동식물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에 따라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적은 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미래에 절멸(아주 없어짐)될 위험에 처한 상태를 뜻합니다.

멸종이 되는 주요 이유는?

한 생명이 멸종에 이르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원인이 겹쳐서 멸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식지 파괴
-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 외래종의 유입
- 애완용으로 기르기 위한 밀렵과 밀수

멸종에 대한 다양한 기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II 급

멸종위기에 처했거나(I 급),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II 급), 267종(I 급 60종, II 급 207종)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등)

동물·식물·광물·지질 등에서 역사적·문화적·과학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IUCN Red List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9단계: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정보부족(DD), 미평가(NE)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나누어 규제

국립생태원의 노력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함은 물론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ITES동물보호시설

국내에 밀반입된 CITES동물에 대한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우리나라에서 사라졌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경북 영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야외전시구역의 주요 멸종위기 동물

사슴생태원

고라니, 산양

동북아산림동물보호시설

먹향새, 원앙, 담비

CITES동물보호시설

회색앵무

에코케어센터

비단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순다늘보원숭이, 초록뺨비둘기무늬앵무
노란뺨뱀긴팔원숭이

발행월 2022년 4월

주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대표전화 041.950.5300

홈페이지 www.nie.re.kr

그림 일러스트 작가 조고은

© 국립생태원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22

※ 이 자료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을 국립생태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율관람용 체험활동지

야 외 편

국립생태원에서 볼 수 있는 멸종위기종



국립생태원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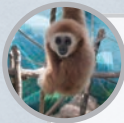
에코케어센터



비단원숭이 *Callithrix jacchus*

II

아마존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무를 잘 붙들 수 있는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꼬리에 줄무늬 모양의 검은띠를 가지고 있고, 귀에 흰색털이 다발처럼 길게 자라나요. 애완용으로 자주 밀수되는 종으로 CITES II 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어요.



흰손긴팔원숭이 *Hylobates lar*

EN I

검은색에서 어두운 갈색 또는 밝은 갈색 등 털 색깔이 다양하지만, 손과 발, 얼굴 둘레에 (흰색)의 털이 나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새끼동물이 애완동물로 밀거래 되거나, 열대우림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CITES I 급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CITES동물보호시설



회색앵무 *Psittacus erithacus timneh*

EN I

아프리카 가나에 주로 서식하는 앵무 종류로 전체적으로 회색의 몸에 꼬리깃만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앵무새 중에서도 말을 잘하고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애완용으로 인기가 높았어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급격히 수가 줄어들어 CITES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야외의 주요 멸종위기 동식물



적색목록

CR 위급 EN 위기 VU 취약 NT 준위협 LC 관심대상

CITES

I 부속서 I II 부속서 II III 부속서 III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II 급

동북아산림동물보호시설



먹항새 *Ciconia nigra*

VU II

항새는 대부분의 몸이 하얗고 날개 끝이 검은색인데, 먹항새는 가슴과 배 부분만 하얗고 대부분 검은색을 띠어서 먹항새라고 불려요. 주로 농경지, 강 하구 등에서 물고기나 양서·파충류를 잡아먹으며 살아요. 하천 개발 등으로 점차 사라져,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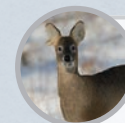


담비 *Martes flavivula*

II

몸통은 노란색, 얼굴과 네 다리, 꼬리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이 없는 우리나라 숲 속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식 위주인 것 같지만, 잡식성으로 과일이나 꿀 등도 좋아합니다. 서식지가 훼손되고 로드킬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사슴생태원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VU II

암수 모두 뿔이 없는 대신 (송곳니)가 나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암컷은 작는데 비해, 수컷은 밖에서도 잘 보일 정도로 길게 송곳니가 자라나요. 우리나라에선 워낙 많이 살고 있어,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친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중국 일부지역과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어 IUCN 적색목록의 취약(VU)로 지정되어 있어요.



산양 *Naemorhedus caudatus*

VU I I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살아가며, 바위지대를 잘 탈 수 있는 발굽을 가지고 있어요. 암컷, 수컷 모두 뿔이 나는데, 뿔이 빠지지 않고 해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에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활동지 문제의 정답은 해당 동식물 해설판을 참조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 정답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알림·홍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